

Youngeun News

동행

2월

2024년 450호



신임서리집사 서약식

“넘어짐 주의”

세상을 살다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 생각할 때

먼 곳을 바라볼 때

눈 감고 있을 때



믿음 안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일어서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는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49호 / 2024. 1. 7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넘어짐 주의”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죄를 알고 죄와 싸우라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에 대한 이해 / 김민식 목사

08 동행

혁신, 경건의 열매 / 이찬양 목사

10 웹진 동행

청년들이 모였다! / 김명희 통신원 (청년부)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 류시은 (청년1부)

전도 전도 전도! / 구현진 통신원 (꿈자람부)

2024년 유스비전 29기가 인사드립니다! / 유스비전 29기

14 영은 소식

영은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 한진구 목사

故 서현석 은퇴장로 교회장

16 교회안내

청년부 겨울 수련회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e, 죄를 알고 죄와 싸우라

(창세기 3:1~3)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창세기 3장을 통해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어떤 경로로 침투하여 작동하는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가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 죄는 어떤 경로로 침투하는가?

죄는 먼저 ‘왜곡’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서술한 데 비해 뱀은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엘로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뱀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일부러 누락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판단력을 흐리

게 하고 나아가 언약이 파기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창3:3)”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죄는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곡된 진리에 의해 ‘분별력’이 흐려져 있을 때 뱀은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거짓된 말’로 진리를 왜곡한 뱀은 오히려 ‘새로운 대가’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제를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곡’과 ‘유혹’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모호하

게 알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힘 있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억한 것을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왜곡’ 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죄의 시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

여기에 언급된 죄의 본질적 요소는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2:16)

창세기에서 ‘먹음직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충동을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는 대로 탐하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없던 욕심도 계속 자극되어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과 연관됩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제일로 삼는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근원에는 ‘죄의 본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삶’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한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이 것처럼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대신 때로는 믿음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죄가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창3:7)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자 곧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대로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진 그들은 오히려 수치심을 느낍니다. 죄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끄러워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3:8)

그들은 이제 죄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으며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받게 된 저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마니하고”(히12:4)

로마 정부에 맞서 유대 강경파가 결사항전하던 마카비 시대에 전사들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할 것을 독려할 때에 사용한 표현이 ‘피흘리기까지 싸우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영적 싸움에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맞서지 못하거나 격렬한 싸움을 피한 채 ‘영적 무기력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에 당당히 맞서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 죄를 알고, 죄와 싸우라

창세기 3장을 통해 살펴본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죄는 ‘왜곡과 유혹’을 통해 들어오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죄를 ‘차단’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피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알고 죄와 싸우는 영적 혁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들이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2.100**

자신의 말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받고 위임 받는 사
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시나"가 기록된다.
가 되도록 소명을 받은 대언자이며, 예언의 믿
사 **첫째,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이다.** 하나님의 대사
었다.

2. 예언자의 역할

모 삼으셨다고 믿으시나. 이사가 21장 11~12절에
서는 이사를 '파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르 | 김민준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에 대한 이해

민 | 김민준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
고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영려주는 사람들이
다섯째, <조배>, <파수꾼>, <조배>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부를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신적인, 신적인
구약에 300회 이상 사용된다. <나비>는 아카드어의
는 용어를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며, 이 용어는
<나비>, <예언자>, <예언자>를 칭하
셋째, <빛>는 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넷째,**
이다. 이 동사는 '환상을 갖다'라는 뜻도 있으며, 환
포, '받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하자>에서 파생된 말
둘째, <조배>, <선견자>이다. 선견자를 표현하는 명칭으
를 들 수 없는 특별한 '이야'를 가진 사람이다. **셋**
를 향해 적용하여 부르고 있다. 선견자는 다른 사람
'받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사무엘
를 가리킨다. **둘째, <로에>**, <선견자>이다. <로에>
회자되었다. 초자연적이고 잠재적 능력을 지닌 사람
건강한 여인과 같은 평범한 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들에게 적용된 명칭이다. 종들과 군인을 그리고 경
리사(왕하 4:7)와 이들이 영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언
세(신33:1), 사무엘(삼9:6), 엘리야(왕상17:18), 엘
셋째, <이쉬 하 엘로하>,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게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1. 예언자에 대한 명칭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를 지칭하고 있는 명칭은 크

혁신, 경건의 열매 - 필립 야콥 슈페너의 생애 -



글 | 이찬양 목사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는 1635년 1월 13일 알자스 지방인 라폴츠바일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요한 필립 슈페너는 슈트라스부르크 출신



필립 야콥 슈페너

으로 라폴트슈타인의 영주, 궁정관리, 법학자였다. 필립 야콥 슈페너는 공작 지위를 가진 아버지와 궁정교회에 출석하며, 루터교회의 영향 아래서 자랐다. 슈페너는 어렸을 때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엠마누엘 손톤의 『황금보석』과 같은 경건 서적들을 읽으며 자랐다. 슈페너의 아버지는 위의 책들을 포함한 여러 경건 서적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페너는 어린 시절부터 쉽게 경건 서적에 접근할 수 있었다.

■ 신학공부 : 경건연구

유년 시절부터 경건 서적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던 슈페너는 1651년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주일에 경건 서적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묵상 일기를 쓰면서 경건 연구에

힘썼다. 1653년 18세가 되던 해에 토마스 홉스의 『시민론』을 비판적으로 다룬 논문을 가지고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공부를 마친 슈페너는 1654년 6월 14일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세 명의 스승인, 세바스찬 슈미트, 요한 슈미트, 요한 콘라드 단하우어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슈페너는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 연구에 관한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경건 서적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철학을 비롯한 폭넓은 인접 학문 분야를 다루며 신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탁월한 신학자들 아래에서 신학을 공부한 슈페너는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심을 보였다.

그는 신학교 공부를 마친 후인 1659/1660년에 히브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요한 북스토르프를 찾아갔다. 북스토르프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바젤의 개혁주의 대학에 다니기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멀어진 슈페너는 성경적 오리엔탈 언어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성경 원어에 대한 강조점은 후에 경건주의 신학의 특성이 되었다. 1663년부터 슈페너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자유 설교가로 활동하였다. 이듬해인 1664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 대한 주석을 담은 논문(De Muhammedismo in Angelis Euphrataeis S. Johanni Apocl. IX 13 ad 21 praemonstratus)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사역 : 경건모임을 통한 교회개혁

슈페너는 1666년부터 1686년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하였는데, 31세의 슈페너는 그곳에서 11명의 목회자들이 속해 있는 목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젊은 슈페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의회에 더 엄격한 주일성수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견진성사를 도입하고, 교리문답 수업을 개선하고, 분기마다 회개 및 기도의 날을 시의회에 소집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혁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슈페너가 보기에 교회의 상황은 외적인 교회성에 도달할 뿐, 아른트가 말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669년 7월 18일 주일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설교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주일에만 예배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프랑크푸르트 일반 교인들을 진정성이 결여된 기독교인, 즉 죽은 신앙과 거짓되고 바리새적인 의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그는 당국의 규정들을 통한 국가교회의 종교성 회복을 요청했지만, 결국 사회적 규율로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슈페너는 한계에 부딪혀 다른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게 되었다. 1670년 교회의 개선에 대해 체념한 슈페너는 새로운 방식의 교회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소위 ‘경건 모임’이다. ‘경건 모임’은 이전에 슈페너가 거시적 차원의 개혁을 도모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는 이제 거시적 차원의 개혁 대신,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 개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개혁을 이루는 미시적 접근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1670년 8월 이후 슈페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지속적으로 ‘경건 모임’을 진행하였지만, 다음 사역지인 드레스덴(Dresden, 1686-1691)과 베



슈페너의 대표작 『경건한 열망』의 1676년 에디션 표지

를린(Berlin, 1691-1705)에서는 같은 형태의 ‘경건 모임’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슈페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통한 교회 개혁에 여전히 천착하였다. 형식적인 ‘경건 모임’은 사라졌으나, ‘경건 모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상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교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슈페너는 1705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루터교회에서 루터 이후에 어떤 신학자도 가질 수 없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중략)



글 | 김명희 통신원(청년부)

청년들이 모였다! - 청년부 동계수련회 -



1월 7일 주일, 청년들과 교사 198명이 비전홀 청년부 예배실에서 새해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비전홀 예배실은 만석이였다.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남기평 외, 동연, 2017)고 하지만, 영은교회 청년부는 예외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매 주일 180~200여 명이 예배하며,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도 주일마다 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다.

청년들은 7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동계수련회 장소로 떠났다. 교회 앞에는 버스 3대가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들과 교사가 버스와 승용차에 나눠타고 파주 솔 수양관으로 향했다. 수양관 대강당에 청년부 150여 명이 모였다. 2박 3일 동안 진행될 찬양과 기도, 말씀과 나눔, 코너학습의 다양한 일정이 그

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 오후 5시 환영회를 시작으로 동계수련회가 막을 올렸다. 수련회 첫날, 테루아 찬양팀의 찬양과 김민식 목사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영성을 깨웠다.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인 영은의 청년들이 새해를 맞으며 찾은 영성의 자리, 이날 그들은 주님을 향해 한껏 찬양하며, 기도했다. 주님께 ‘생명의 양식’을 구했다.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파주 솔 수양관은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나를 혁신’ 하려고 온 청년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동행**




글 | 류시은 (청년부)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

먼저 혁신시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신,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모든 이들을 두루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와 QT를 통해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새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원하는 옷을 찾고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모아서 원하는 새 옷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 후에는 이전의 옷들은 제쳐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옷을 이리저리 착용해 보고 가장 깔끔한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에 힘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이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고대하며, 기대하게 될 때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기대하며 설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간증하며 씨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이 신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집회 시간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먼저 찾아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가장 순수한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며, 수련회 시작 전부터 준비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한 모든 청년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구현진 통신원(꿈자람부)

전도! 전도! 전도!



1월 13일(토) 영등포노회 아동부에서 주최한 “어린이 전도 EDI” 세미나에 이에리야 목사, 아동부 교역자, 교사, 어린이 11명, 총 22명이 함께 했다.

EDI 전도훈련원(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소속기관)과 히즈쇼에서 협업하여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사역자, 교사 등 어른들의 어린이 전도는 물론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 양육하도록 돕는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랩으로 하는 말씀 챗트와 노크애니메이션을 즐겁게 시청한 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 전도 훈련 세미나를 듣고 온 아이들로부터 앞으로 주변 친구들을 잘 전도하고, 전도한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멋진 다짐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은 교육부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전도의 주역이 되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영은교회 「유스비전」 후원자님께 2024년 유스비전 29기가 인사드립니다!



팀장 : 황민철



부팀장 : 이가희



총무 : 조성은



서기 : 홍신영



회계 : 주예성



홍보 : 정석호

◎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2023년, 유스비전 28기 4명의 청년들이 유럽비전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유스비전 29기 6명의 청년들(사진)이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28년 동안 유스비전 청년들의 유럽 비전여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스비전의 소중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스비전 29기는 6개월간 신앙훈련과 여

행지 공부를 한 후 7월 한 달 동안 유럽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은 3가지 방법으로 전해 주시면 됩니다:

① 회비봉투/목적헌금봉투에 넣어 예배시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② 유스비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자동이체 가능)해 주시거나, ③ 김명희 권사에게 후원금을 직접 주시면 됩니다. **동행**

- 이체 : 국민은행 752601-04-257247 (김명희 유스비전) -> 이름 반드시 표기!
- 현금 : 회비봉투나 목적헌금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후원봉투는 다음주일 3층 본당 옆에 있는 현금꽃이에 꽂아 놓겠습니다.
- 보고회 : 11월 둘째 주일에 유스비전 보고회를 가집니다. 모든 후원자님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유스비전 후원회 총무 김명희 권사(010-9166-6809)

2024. 1. 7
유스비전 후원회

영은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글 | 한진구 목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지역의 이웃들과 직장인들을 섬기고자 커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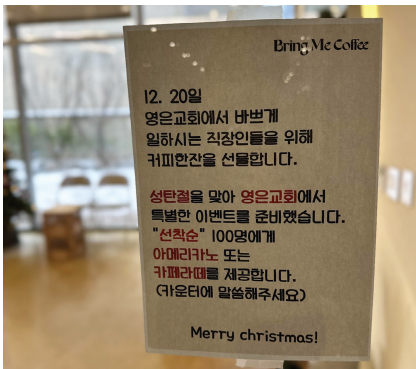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3개 지역 카페(메가커피(양평역점), 더 착한커피(양평역점), 브링미커피)와 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성탄절 전 주간인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하루에 한 카페씩 양평동의 직장인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약 500여 잔의 커피를 무료로 선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탄

의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주변 상권을 응원하고 교인뿐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나누고자 계획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고(故) 서현석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지난 1월 20일 토요일 고(故) 서현석 은퇴장로의 교회장(敎會葬)이 있었다. 고(故) 서현석 은퇴장로는 1936년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1964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81년 집사 안수를, 1990년 장로

장립을 받았고, 지난 2007년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또한 2005년 영등포노회 부노회장 및 총회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교회에 헌신했다. 고(故) 서현석 은퇴장로는 배금연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영목, 영민, 영준, 영란의 3남 1녀가 있다.

다음은 이상의 은퇴장로의 조사이다.

조사 (弔辭)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 서현석 장로님!

장로님께서서는 1990년 장로로 임직하시고, 2007년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영은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섬기셨던 기둥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지난 2주 전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3부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께서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로님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으니 그 슬픔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시며 최근까지도 오후 찬양 예배에 은퇴장로님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권면하시며 모범을 보이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신 장로님의 빈자리가 더 크고 오랫동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저희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故 서현석 장로님!


장로님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으니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장로님이 보여 주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배금연 은퇴권사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또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장로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동안 영은교회를 장로님과 함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주후 2024년 1월 20일
은퇴장로 회장 이상의 장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 (사진 : 허영준 기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조화평 정혜빈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동목사 종현덕 소병찬 김규리
 선교협력목사 빅터 콰쿠 아데비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